

*Biograpy*

최혜심

*Hyesim Choi*

2020

# 최혜심 (崔惠深, Hyesim Choi)

1957년 경주 출생

대구대학교 조형예술학 석사 (서양화 전공)

1978-1980 서독 Hochschule Kaiserslautern (실내건축 전공)

1985-1987 서독 Hochschule der Bildenden Kunst Saar (미술 전공)

## 개인전

- 2018 SM 백화점 Seaside City Cebu, 필리핀  
인사아트 스페이스, 서울
- 2017 하노바 물렌뮤세움, 독일
- 2016 세종호텔, 서울
- 2015 예술의 전당 ACAP 2015, 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4 대구문화재단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 2013 인사아트센터, 서울  
향암미술관, 울진
- 2012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이스탄불 Istanbul Besiktas Belediye Museum of Art, 터키
- 2011 갤러리 소나무, 대구  
홍콩중앙전람청, 홍콩
- 2010 우봉 아트미술관, 대구
- 2009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08 갤러리 소나무, 대구
- 2007 대구백화점 갤러리, 대구  
위해 국제전시센터, 중국
- 2006 호당미술관, 영천

## 아트페어

- 2013 아트경주 특별전  
홍콩 아트페어(AIAA)  
홍콩 호텔아트페어
- 2012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서울  
부산국제아트페어
- 2011 상하이 아트페어
- 2010 홍콩 모던아트페어

## 주요단체전

- 2018 미술세계 기획전 '시인 김월수가 만난 화가', 서울  
베이징 1503 미술관 '실크로드 유럽·일본·한국전', 중국
- 2014 동남미술협회 40주년 기념초대전, 대만  
대구문화재단 '별난이야기'전, 대구
- 2013 서양화 4인전, Comet 갤러리, 대구  
경북미술 오늘의 동향전, 향암미술관, 울진  
현대미술 20인 조망전, 예일화랑, 서울  
국제 Art Club Comet전, 인터볼고호텔 프라도 미술관, 대구  
대만·한국 국제교류전, 범어아트스트리트, 대구  
대구예술문화회관 영호남 교류 희망나눔전, 대구  
글로벌갤러리 개관기념 현대미술 작은그림전, 서울  
대구문화재단 대구시 열린 예술장터전, 대구  
경산예술제 초대전, 경산
- 2012 하와이 모던아트페스티벌, 미국

대구문화예술회관 한미 국제교류전, 대구  
한국·터키 국제교류전, 서울미술관, 서울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전, 대구  
'Thank you 웨일즈'전, 영국 카디프  
국제현대미술제 기획초대전, 서울  
김귀순 갤러리 국제클럽 기획초대전, 대구  
신상갤러리 인사동 화랑축제 기획전, 서울
- 2010 국제태양미술제 초대전, 일본 오사카  
동우갤러리 개관기념 대구시 중견 여류작가 초대전, 대구  
전북예술회관 한국미술전, 광주  
영천창작스튜디오 그림사랑전, 영천  
광주시립미술관 한국전업작가 대작 기수전, 광주  
대구문화예술회관 한마음 아트페스티벌, 대구
- 2009 동아백화점미술관 Comet 국내작가 기획초대전, 대구  
세종문화회관 한국미술대전, 서울  
국제 Art Club 수성아트피아 기획초대전, 대구
- 2008 '시공의 벽을 넘어서'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호주·중국·대만·일본·한국 국제미술단체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의 어제와 오늘'전, 대구  
조망과 형상전, 수성아트피아, 대구
- 2007 한국예술작품 수작전, 일본 후쿠오카  
한일 국제교류전, 일본 오사카
- 2006 평생교육정보센터 초대전, 경산  
동아백화점미술관 봄의정원전, 대구
- 2005 대구회화대전, 대구  
한국미술협회 정기전, 대구  
전업미술가협회 정기전, 대구  
호당미술관 입주작가전, 영천
- 1980 뮌헨교회 Evangelish Kirche 특별전, 서독
- 1978 경상북도대전 수상자전, 대구
- 1977 전국디자인공모전 수상자전, 대구

## 주요활동

국제 Art Club Comet,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삼성현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홈페이지

[www.choihyesim.com](http://www.choihyesim.com)

## 최혜심의 '사랑'

# 환상적이고 초월적이며 신비적인 조형언어

### 신항섭 (미술평론가)

그림은 현실적인 미를 찬미하는가 하면, 상상 또는 환상적인 비현실적인 미를 추구하기도 한다. 화가의 조형적인 상상력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세계를 만들어냄으로써 현실공간을 상상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림을 통해 현실과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이란 어차피 화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나 인생관을 투영하는 것이고 보면 주관적인 시각이 작용하게 마련이다. 그 주관적인 시각이야말로 창작의 원천일 수 있는 것이다.

최혜심은 그림과 문자언어가 병립하는 독특한 조형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림과 문자가 하나의 몸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어쩌면 '숨은 그림 찾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문자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문자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는 조형적인 기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자와 현실적인 이미지라는 서로 어울릴 듯싶지 않은 관계를 교묘한 방법으로 묶어 놓는 조형적인 발상이 신선하다.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문자는 한글의 '사랑'이라는 단어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변신하면서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든다. 이를테면 한자의 상형문자처럼 한글의 '사랑'이란 단어 또한 그림으로서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상형문자인 한자를 풀어내면 곧바로 그림으로 바뀔 수 있으나 표음문자인 한글은 애초에 형상과는 상관없다. 그럼에도 그는 한글을 그림의 일부로 바꾸어 놓는 조형적인 마법을 즐긴다.

그의 작품을 보면 도처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글자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풍경 속의 나무나 꽃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환하면서 보이는 듯 마는 듯 숨겨지는 형태로 자리할 따름이다. 꽃이나 열매는 물론이려니와 사람이나 구름의 이미지가 '사랑'이라는 글자로 표현되는 마법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이상스럽다거나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자연물의 형태 그 일부분으로 만들어놓기 때문이다. 이는 누가 상상하지 못한 그만의 조형적인 아이디어이다. 어쩌면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사랑'이라는 문자 자체를 그림으로 형상화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감정을 푸근하고 따뜻하게 만든다. 그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을 유발한다.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사랑이라는 힘은 간단히 악의 감정을 감쪽같이 용해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꿈과 희망과 행복과 낭만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

는 ‘사랑’이라는 말은 참으로 신비하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가 ‘사랑’이라는 문자언어를 작품에 직접 대입시키는 것은 것처럼 신비한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작업의 주제로 삼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기여하는 화가로서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이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감싸 안는 드넓은 포용력을 뜻한다. 그는 이와 같은 사랑의 신비한 힘을 형상화함으로써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그림은 이처럼 마술과 같은 사랑의 힘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놓는다. 밝고 맑으며 순수하며 아름다운 소재 및 색채이미지가 지배한다. 그와 같은 그림을 보면서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없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듯이 그의 작품은 시각적인 즐거움으로 충만하다. 소재는 물론이려니와 색채이미지가 주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폭넓은 의미와 일치한다. 그가 ‘사랑’이라는 문자를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믿는 까닭인지 모른다. 이는 그림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문자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대로 그림의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문자를 조형적인 이미지로 변환하는 그의 작업은 저절로 내용이 갖추어져 있다.

그의 작품에서 문자는 독립적인 형태 및 의미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형상을 빙자하거나 거기에 동화되는 방식으로 자리한다. 문자가 은폐되거나 형상 속으로 녹아 드는 상황인 것이다. ‘사랑’이라는 문자는 그림의 형식에도 관여하지만 그보다는 내용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 즉 내용을 주도하고 지배하는 작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가령 인물 몇 사람이 모여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인물 하나하나가 모음이나 자음의 역할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문자를 완성한다. 하지만 이들 사람을 보면서 곧바로 사랑이라는 문자를 읽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의 형상으로 은폐되고 은닉되며 변형되는 까닭이다.

그의 작품은 때로는 전면회화 형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작은 열매들이 화면 전체를 덮고 있다. 거기에도 인간의 문자가 무수히 존재한다. 과일 꼭지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글자를 형성하는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춤추는 여인이라든지 꽃과 열매로 가득 채워진 무릉도원과 같은 풍경은 물론이요, 바다풍경이나 우주의 이미지에도 ‘사랑’이라는 문자가 은둔하듯 자리한다.

어느 면에서 그의 작업은 실재하는 물상의 형태를 묘사하는 그림과 문자언어로 기술하는 문학이 하나의 관점으로 통합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작품에 따라서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농후하다. 문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학적이 아니라, 작품 전체적인 정서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문학이나 그림의 서정성은 꿈과 사랑과 행복과 낭만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작품 속에 표현되는 서정성은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이며 신비적인 이미지와 공존한다. 그리하여 현실세계와는 또 다른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 Artist Note

내 안에 그 무엇을 끌어내려 끊임 없이 번민한다. 이것을 창작의 고통이라 할까? 잠 못 이루는 밤에 캔버스를 펼쳐놓고 거칠게. 무아지경으로 칠해가며 물감놀이 한다. 옆, 앞, 뒷모습이 다르듯이 광풍 같은, 잔잔한, 겨울처럼 쓸쓸한, 다른 모습의 내가 있다. 아침이면 모두 지워 버리고 평안을 그린다. 자제력 없이 자유분방하게 쏟아 놓은 색깔이 저마다 아우성이어서 마음이 불편하다. 나는 내 그림을 보면서 사랑의 에너지를 느끼고 평안으로 위로 받기 원한다. 그래서 잠 못 이루는 혼미한 밤에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인적 없는 이른 아침 바닷가를 거닌다. 활짝! 어둠이 걷힐 때 수 없는 유리구슬이 반짝이며 쏟아진다.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면서 결을 만든다. 이러한 마음의 결을 캔버스에 쏟아 놓을 때 행복하다.

몰입해서 그림 그릴 때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느낌은 흘러가는 순간처럼 재현이 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이 붉게 푸르게 바뀔 때, 그림도 붉게 푸르게 변한다. 어제 그린 내 그림도 꼭 같이 그릴 수 없다. 계산되지 않은 색과 색이 캔버스에서 우연히 만들어지는 느낌을 때로는 스스로 신기해 하기도 한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신과의 외롭고 긴 싸움이다. 때로는 자신에 대한 정체감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하지만 나를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긴다. 하나님이 내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재능을 주셔서 감사하다. 내 그림에서 캔디같은 새콤달콤한 맛을 느끼고 꽃향기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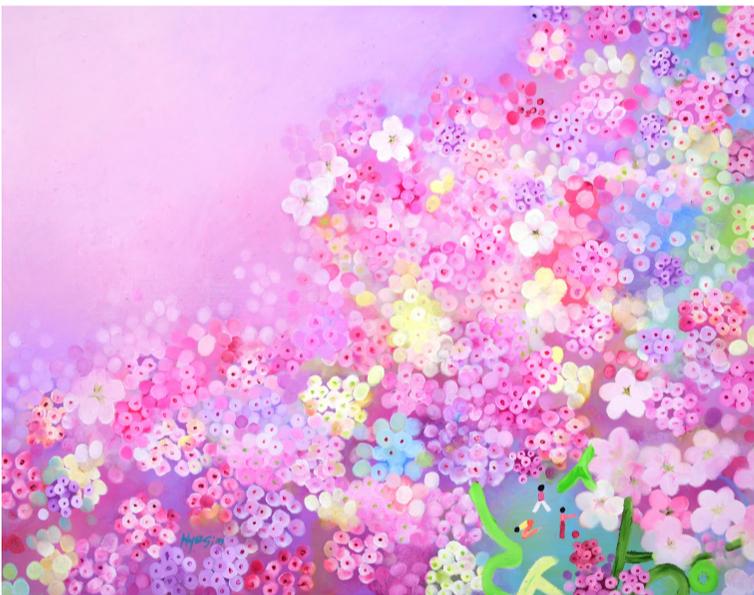
나는 자주 사랑이라는 문자 자체를 그림으로 형상화한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나의 삶을 사랑한다. 산과 바다를 사랑하며 여유롭게 떠다니는 흰구름과 이름 모를 소박한 작은 들꽃들처럼 맑은 영혼으로 그림을 그리길 원한다.



01. Oil on Canvas, 116.7x80.8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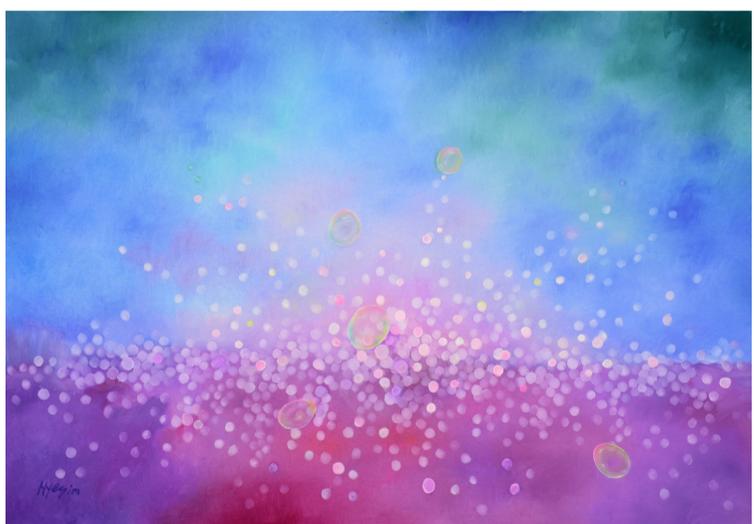
02. Oil on Canvas, 116.7x80.8cm,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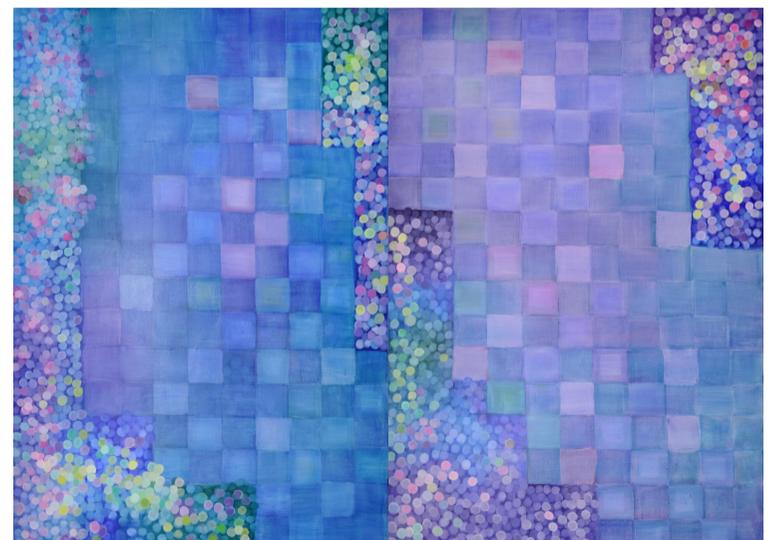
10. Sunlight-Water, Oil on Canvas, 116.7x91cm, 2017



19. Oil on Canvas, 72.7x60.6cm, 2012



14. Oil on Canvas, 162x112cm,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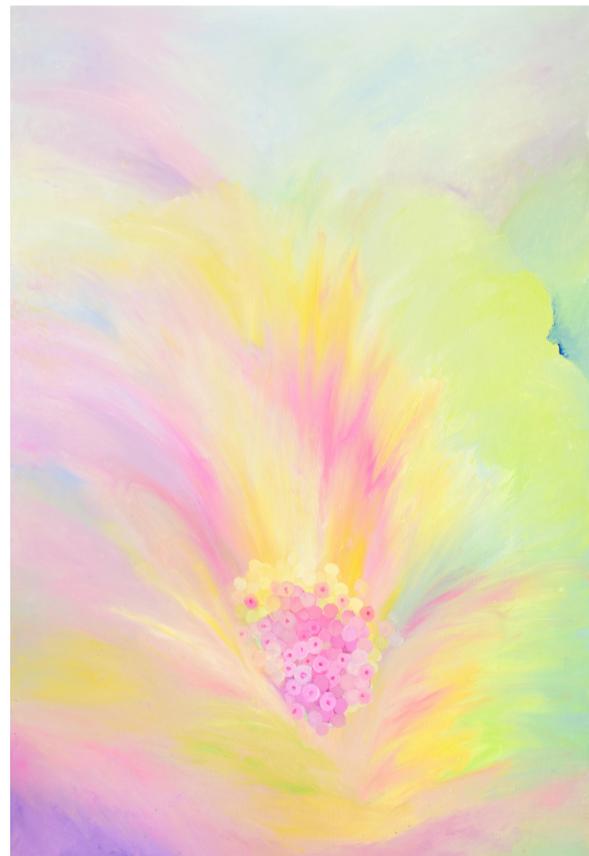
04. Oil on Canvas, 224x162cm, 2019



07. Oil on Canvas, 233.4x72.7cm, 2019



12. Sunlight-Water, Oil on Canvas,  
80.8x116.7cm, 2017



13. Sunlight-Water, Oil on Canvas,  
80.8x116.7cm, 2017